

# 모스크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첫 기념식 "祖國이 눈을 떴다"

## 대한민국 정부 구소련망명 조명희 독립운동가 훈장 수여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대사관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사진/겨레일보

<겨레일보 www.koreans.ru 박지호 기자>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거행되었다.

지난 11일 약 6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해 주러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구소련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포석 조명희 선생에 대한 훈장수여식과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대통령 위문품 전달식이 있었다. 훈장은 그의 아들 조블라디미르 선생이 대신 받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은 외면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야 비로서 눈을 뜨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

다. 특히 모스크바 한인회(회장 박형택)도 지난해 말 한인대상 독립유공자 부문에 포석 조명희를 선정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포석 조명희 선생은 연해주 항일투쟁 영웅 59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일제 강점기에 민족혼을 불리일으킨 구소련한인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는 1928년에 소련으로 망명, 소련작가동맹회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1937년 체포돼 총살당했다.

그는 1925년 8월에 결성된 사회주의 문학단체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 통칭 카프의 멤버. 계급의식에 입각한 조직적인 프로레타리아 문학과 계급혁명운동을 목적으로 사회주의문학의 선구자로 활동했다.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특히 중손자까지 자리를 함께해 그야말로 '되찾은 조국'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자리였다.

우윤근 대사는 인사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격려하면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희망찬 조국을 위해 새로운 100년을 함께 시작해 나가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이 꿈에도 그리던 발전된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통일 조국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주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 ■ 조명희 선생의 공적

조명희 선생은 1921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친일자 등을 징계할 목적으로 조직된 의권단에 참여하고 1925년 8월에 창립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에 참여하여 「선봉」지의 주필, 소비에트 문사동맹 원동관 리부 조선인 지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의 작품에는 1920-30년대 국내와 러시아에서 「낙동강」, 「짓밟힌 고려」, 「여자 공장대」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했다.

### 작품 : 낙동강

조성화가 부른 소설속의

낙동강에 대한 노래

- 조명희 작사, 박영진 작곡, 조성화 노래

봄마다 봄마다 불어 나리는 낙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 넘쳐 흐르네  
흐르네 흐르네 에헤 흐르네

철렁 철렁 넘친 물 들로 벌로 퍼지던  
만목숨 만목숨 길러 길러 낸다네  
흐르네 흐르네 에헤 흐르네

천만년 살아온 낙동강물 낙동강물  
하늘가에 간들 꿈엔나 잇을 소나  
흐르네 흐르네 에헤 흐르네



### 작품 : 짓밟힌 고려(산문시)

-집필자 (2014년) 김상철(한국의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의 신념을 선언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구현한 작품이다. 형식과 내용은 대체로 소련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쓴 「농촌의 시」와 비슷하다. 곧 형식에서는 서사성을 담은 긴 산문시이고, 내용에서는 민중의 처참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에 발표한 시에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충실히 반영된 목적 문학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짓밟힌 고려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밭서 오래이다.

그놈들은 군대와 경찰과 법률과 감옥으로

은 고려의 땅을 엮어 놓았다.

칭칭 엮어 놓았다—은 고려 대중이 입을 눈을 귀를 손과 발을.

그리고 그놈들은 공장상점과 광산과 토대를 모조리 삼키며

노예와 노예의 떼를 몰아 채죽질 아래에 피와 살을 사정없이 끌어 먹는다.

보라! 농촌에는 땅을 잃고 밭을 잃은 무리가

북으로 북으로, 남으로 남으로, 나날이 쫓기어 가지 안는가

뼈뼉을 맞아도 먹여지지 않는 그 사회다. 도외에는 집도 밭도 없는 무리가 죽으려

가는 양의 떼같이 이리저리 몰리지 안는가

그러나, 채죽은 오히려 더 그네의 머리 우에 떨어진다—

순사에게 눈 흘긴 죄로, 디주에게 소작료 감해 달라는 죄로, 자본주에게 품값 올려 달라는 죄로.

그리고 또 일본 제국주의에 반항한 죄로, 뿌로레타리아트를 위하여 나와 가며 일하는 죄로.

주림과 막대에 시달려 빼, 말은 그네의 몸동이 위에는 모진 채죽이 던져진다.

어린 ‘복남’ 이는 저의 홀어머니가 진고개 왜놈에게 종노릇하느라고 만나지 못하여 보고 싶다고 운다

젊은 ‘순이’ 는 산같이 민던 저의 남편이 품파리하려 일본 간 뒤에 몇 년이나 소식이 없다고 ‘강곡구베야’ 에서 죽었는가 보다고 감독하는 왜놈에게 충살당하였나 보

나고. 왜놈의 밭솥에 불을 집혀 주며 한숨 끝에는 눈물짓는다

아니다. 이것은 아직도 둘째다

기운 씩씩하고 말 잘하던 인쇄 직공 공산당원 ‘성룡’ 의 늙은 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결에 경찰서 문턱에서 매 맞아 죽어 나오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쓰러졌다—그는 지금 꿈에도 자기 아들의 일흔을 부르며 운다

아니다 또 있다

십 년이나 두고 보지 못하던 자기 아들이 정치범 미결감 삼 년 동안에 옷 한 벌 밭 한 그릇 들이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겠다고 천 리 밖에서 달려와 공판정으로 기여들다가 무지한 간수 놈의 발길에 채여 땅에 잡버저 구르며 한울을 치어다보아 탄식하는 쉼 머리의 로인도 있었다

이것뿐이냐! 아니다

은 고려 뿌로레타리아의 동무—몇 천의 동무는 왜놈들의 악독한 주먹에 맞아 죽고 병들고 쇠사슬에 매어 감옥으로 갔다

그놈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형과 아오를. 아니, 은 고려 뿌로레타리아트를 박해하라 든다

고려의 뿌로레타리아 그들에게는 오직 죽임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죽임과 죽음!

그러나 우리는 락심치 안는다. 우리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뼈만 남은 주먹에는 원수를 격구려트리라는 거룩한 마음의 싸움의 힘이 숨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울도다. 다만 이 싸움이 있을 뿐이다.

칼을 칼로 갚고 피는 피로 씻으라는 싸움이. 힘제인 뿌로레타리아트의 새 기사대를 높이 세우라는 거룩한 싸움이!

그리고 우리는 또 믿는다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산을 넘어

그러나 굳건한 거름으로 거러 나가는 은 세계 뿌로레타리아들의 상하피 싶습인 몇 억만의 손과 손들이

저 동쪽 하늘에서 붉은 피로 물든인 태양을 떠밀어 올린 것을

거룩한 뿌로레타리아트의 세상이 올 것을 굳게 믿고 나간다!

《초판본 조명희 시선》 오윤호 엮음, 82~85쪽



▲ (왼쪽) 우윤근 대사와 훈장을 수여받은 조 블라지미르(조명희 아들) 선생. (오른쪽위) 인사말을 하는 우윤근대사 . (아래) 명패와 위문품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 사진/겨레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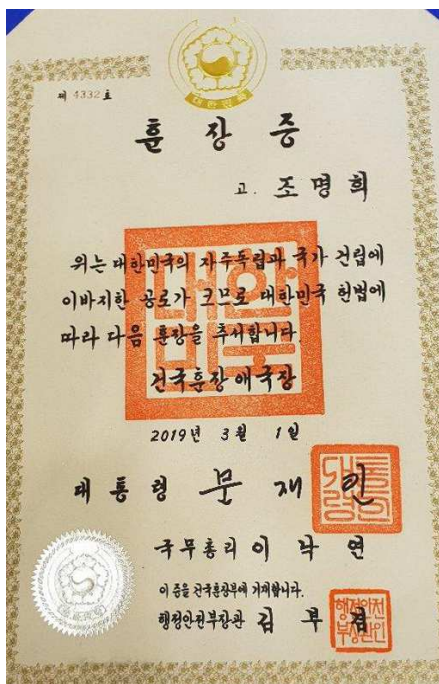
이 시는 소련으로 망명하여 연해주에 정착한 조명희(1894-1988)가 1928년에 한글 신문인 『선봉(先鋒)』에 발표한 산문시이다. 당시 그는 조선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에게 수업을 받은 최 예카테리나는 ‘조선 해방을 위해서 문학을 무기로 삼아 투쟁한 인물’ 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1969년에 황동민이 모스크바 소련 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를 통해서 발간한 『조명희 선집』에도 수록되었다. 일제의 검

열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일제를 비판하면서 조선의 처절한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축하**

존경하는 최 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님! 조 블라디미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포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러시아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찾아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1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우리 민족의 온전한



▲ (왼쪽) 건국훈장 애국장 및 훈장증. (오른쪽) 대사관 강당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사진들.

국권회복과 한반도 내외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의 억압을 피해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 임시정부는 독립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구심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조국의 독립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을사늑약과 일제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이위중 선생님, 임시정부 재무총장으로 추대되신 최재형선생님, 항일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신 조명희 선생님, 그리고 항일민족 운동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 일제와 싸워서 쟁취한 것입니다.

선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과 현재의 발전된 조국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순국선열들과 유공자 후손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및 귀빈 여러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다시한번 가슴 깊게 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우리 후손들 에게 전승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민족적 뿌리를 잊지 않고, 독립 유공자 후손으로서 자긍심과 당당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희망찬 조국을 위해 새로운 100년을 함께 시작해 나갑시다.

우리 선열들이 꿈에도 그리던 발전된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한-러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교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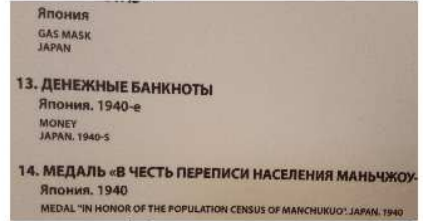
### 대통령 위문품 전달 관련 말씀

공동체 정신의 뿌리이자 국민 모두의 자긍심이 되어주고 계신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여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로 시작하는 3.1독립선언서 글자

## 러 승전기념관의 짓밟힌(?) 한국사 북한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 간접적으로 보여줘



▲ (왼쪽위) 구소련 역시 대일본 항쟁은 중요했다. 고려인 강제이주는 '일본 스파이방자'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다. 2차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승전기념관에 작년 2018년 11월 일본 군국주의의 패망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었다. 입구사진. (왼쪽아래) 구소련당시 1945년 8월 9일 프라우다지에는 "일본은 패망한다"라고 1면 탐기사가 올라와 있다. (오른쪽위) 자세히 보면 붉은군대 사령부라고 적어있는 십원짜리 북한화폐가 중국화폐 등과 같이 놓여있다. (오른쪽아래) 그러나 화폐 설명에는 1940년대 일본 화폐라고만 러시아어와 영어 2개국어로 적혀있다. 여전히 러시아가 북한 및 동아시아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진/겨레일보



◀ 동일한 장소에 걸려있는 이 포스터는 붉은 군대가 일제로부터 해방의 사명을 완성하는 빛나는 업적을 이루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승전기념관은 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 중앙박물관으로 불린다. 1993년부터 모스크바에서 조국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박물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5년 5월 9일 승전기념 50주년에 맞추어 승리공원과 함께 같은날 개장했다. 박물관은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층마다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다. 사진/겨레일보

하나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독립을 향해 하나로 분출된 우리의 염원은 한순간도 사그라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장병의 가슴 속에,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땀방울 속에, 내일을 꿈꾸는 학생의 눈망울 속에 평화와 번영의 희망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정부는 100년을 이어온 선열들의 꿈과 의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그 유족 한분 한분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힘의 원천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국민 곁에 계셔주시길 기원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